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6

제 35권 제1호 통권 37호

이한수 특집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문사철 즉 문학, 역사 그리고 철학을 포함하게 됩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大韓齒科醫史學會)는 인간의 역사속에서 치의학의 조망하므로 인간본연의 의료자세를 추구하는 학회로서 치의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방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1960년 10월 7일 창립되어 현재 58주년을 맞아 환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역사의식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창립 이래로 꾸준히 학회지를 발간하여 치과계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도서들의 출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와 집담회를 진행하여 역사 및 인문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석태 선생님의 특집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호는 치과의사학계의 개척자이시자 대한치과의사학회의 전신인 “대한치과의학사 연구회”의 창립으로 수년간 학회장으로 일하셨던 故 이한수 박사님 특집호를 발행하며 앞서 힘쓰셨던 선배님들과 수많은 회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향후 책임감을 가지고 치과의사학회는 더욱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로서 향후 우리 치과의학의 역사속에 기록하여 남기고 싶은 인물들을 한 분씩 조명해나가는 사업도 지속하려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치과의사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역사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덕과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필요할 때마다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박 준 봉



〈이한수 회장님〉

호 : 도구자(陶丘子), 本雅號(桃丘子)
1926년 10월 17일 서울태생, 본관 연안(延安)
독립유공자이며 경제학자인 이순탁(李順鐸)의 장남
서울 용강초등학교를 졸업
1944년 경기고교 4학년 수료
1948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2회 졸업
1965년 의학박사 학위취득,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주)한국전력 부속병원 치과과장 역임
감리교 아현중앙교회 장로
일본의 정형시(定型詩)인 하이쿠(俳句) 작가, 호도도기스파(派) 소속
2013년 7월 19일 작고 (향년 87세)

목 차

인사말	3
이한수 회장님 자료	7
이한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13
변영남(Byeon, Yeong-Nam)	
이한수 박사님 영전에 읊조립니다	17
이병태(Lee, Byeong-Tae)	
중국 구강의학 사략(史略)	21
신재의(Shin, Jae-Ui)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영국 여행	30
The history of dentistry : U.K. Tour	
권 훈(Kweon, Hoon)	

이한수 회장님 자료

이한수 회장님 자료



이한수 박사

— 고 이한수 회장님 —

〈 약력 〉

호 : 도구자(陶丘子), 본雅號(桃丘子)

1926년 10월 17일 서울태생, 본관 연안(延安)

독립유공자이며 경제학자인 이순탁(李順鐸)의 장남

서울 용강초등학교를 졸업

1944년 경기고교 4학년 수료

1948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2회 졸업

1965년 의학박사 학위취득,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주)한국전력 부속병원 치과과장 역임

감리교 아현중앙교회 장로

일본의 정형시(定型詩)인 하이쿠(俳句) 작가, 호도도기스파(派) 소속

2013년 7월 19일 작고 (향년 86세)

〈 강연 〉

1983년 3월 30일 의사학, 치과의사학이란 무엇인가? 강연

1983년 6월 29일 18세기의학과 치의학, 강연

1983년 9월 28일 한국 고대의 치의학, 강연

1983년 11월 9일 의사학적으로 본 동양의학의 몇 가지 특성, 강연

1984년 5월 17일 동서치과의학의 발달과 그 문화적 배경고찰, 강연

1984년 12월 7일 히포크라테스 치과학설의 개요 및 그 에 대한 평가, 강연

1985년 3월 8일 동서치학발달과 그 문화사적 배경, 강연

1985년 6월 7일 구강외과학 발달사, 고대 인도치학사상과 그 배경, 강연

1985년 9월 6일 고려시대 치과의학의 발달, 강연

1985년 12월 8일 조선초기 치과의학의 발달, 강연

1985년 11월 26일 3차 학술집담회 이조시대 치과의학 발달상, 강연

1986년 3월 조선치대전기 치과의학사, 강연

1990년 3월 20일 치통의 역사, 강연

1991년 3월 6일 서장(Silk Road) 치과의학 전래사, 강연

1991년 12월 13일 동의보감의 치과의학적 특성, 강연

1992년 2월 25일 실크로드의 의사학적 지견, 강연

1993년 11월 30일 서역 치과의학의 전래, 강연

1995년 3월 28일 20세기 치과의학 동향, 강연

1995년 5월 23일 치충의 존재를 신봉한 역사, 강연

1999년 11월 27일 일본 치의학 발달 개관, 강연

1999년 12월 14일 향약연구 및 그 신뢰도의 흥성기, 강연

2001년 3월 20일 실크로드의 기점에 대하여, 강연

2005년 3월 25일 치과의사학 및 대한치과의사학회의 발자취, 강연

2010년 3월 16일 남기고 싶은 말, 강연

〈 업적 〉

전조선배구대회에서 특선, 1943년

대한치과의사학회 개시, 1959년부터

1960년 10월 7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창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3강의실 설립

대한치과의사연구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로 개칭 1962년 12월 4일

대한치과의사학회 간사, 1974.12~1982.1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 위원, 1970.4~1982.3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한수 회장(1960.10~1974.12)(1982.12~1984.12)

1986년 12월 15일 종신명예회원 추대

1994년 일본 俳句, 호도도기스 결사 동인작가, 외국인 작가로 최초

2006년 11월 1일 대한치과의학회 오십년사 편찬위원회 고문 1차회의, 개최

〈 학술지 기고활동 〉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제 1 호, 1 창간

창간사 : “이한수 학회장은 창간사에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 설립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역사를 사랑한다 하며 지난날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치의학까지 책임지려는 의욕을 갖는다고 하였다.” 대한치과의사학회 50주년 기념집

(참고)

1960년 12월 1일 발간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는 세계 최초의 치과의사학 학술지

1962년 프랑스 치과의사학잡지 발간

1951년 미국 AAHD(Americ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가 창립

1964년 여름호가 잡지형태 발간

1967년 일본 치학사연구를 발행

1974년 영국 Dental Historian를 발간

한국치 의사 연대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제 1 호, 116-119

Dental Profession in Korea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제 2 호, 4-7

치통의 역사적 연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제 3 호, 3

향약구급방 창간의 배경과 그 의의. 대한치과의학학회지 1983, 11-12

통일신라 치과의학의 연구, 대한치과의학학회지 1983, 27-39

고려시대 치과의학사 연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4, 17-48

조선시대 전기 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5, 100

병자한일수호조약 후의 일본인의 의료활동.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6, 16-23

대한제국시대의 잇방(치방-아방)의 연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6, 29-31

조선시대 후기 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6, 98

한국 상세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8: 15-48

한국 최근세 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8:49-90

한국의 일본식민지 시대 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8: 91-101

세계치학사 총설,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9, 10(1): 15-24

세계의 동서고대 치과의술,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9, 10(1): 25-26

세계의 동서중세 치과의학,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9, 10(1): 27-30

서역에 관한 의사학적 기초조사(제1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9, 10(1): 47

서역에 관한 의사학적 기초조사(제2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0, 11(1): 49-63

Silk Road 의 의사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지견의 조사와 그 종합(제1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1, 11(1) : 11-14

서역에 관한 의사학적 기초조사(제 4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1, 12(1): 27-34

Silk Road 의 의사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지견의 조사와 그 종합(제2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1, 12(2): 11-14

동서의학의 지리적 구획문제,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1, 12(2): 25-26

서양 중세치과 의학사의 정리와 그 요점,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1, 12(2): 27-38

허준의 동의보감 지견 보유,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2, 13(1): 83-84

서양근세치과의학사의 정리와 그 요점(대학교재 연구2),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2, 13(1): 7

일본 최초의 서양의학 역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3, 14(1): 10-11

한방치과의술 쇠퇴에 관한 고찰,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3, 14(1) : 12-14

서양 근세 치과의학사의 정리와 그 요점,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3, 14(1): 80-84

20세기 치아의학 동향 시론,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4, 15(1): 33-34

서양 고대 치과의학의 정리와 그 요점,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4, 15(1): 53

서양 고대 치과의학사의 정리와 요점,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7, 16(1): 8-28

치충의 존재를 신봉한 역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7, 16(1): 29-32

향약구급방에 관한 하나의 의의,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8, 17(1):

John L. Boots 의 이력,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8, 17(1): 55

일본치의학 간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9, 18(1): 5-17

향약연구와 그 신뢰도의 흥성기,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9, 18(1): 18-21

의사학 관계의 회고,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9, 18(1): 111-114

짧은 중국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00, 19(1): 57-58

실크로드의 기점에 관하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00, 19(1): 59-61

재정과 국유임야 대부 및 조림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08, 27(1): 3-23

〈 대학강의 〉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치과의사학과 관련된 강의)

국제대학교 : 일본시간 강좌 (7년간)

〈역서 및 저술〉

조선치과계변천 이야기(조선지치계 1930), 나라자끼 도오요오(樺崎東陽, 번역, 1960년

별거승이, 수필집, 공저, 1970

꿈과 현실과, 수필집, 1971

주말의 치과의 (석남사) 1973

이한수 치학 박물지 (석남사) 1976

이한수 동서치학 견문기 (석남사) 1977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년 8월 20일

서역치과의약 전례사, 1993

한국치학사 (연세대학출판국), 1988년 5월 12일

서역치과의약전래사 (연세대학교출판국), 1993년 1월 30일

서양의학사 (군자출판사) 1995년 3월 10일

치과보철사 (연세대출판국) 1996

〈수상〉

1983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이한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변영남

Byeon, Yeong-Nam

이한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변영남

선생님 떠나신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특집호를 발행하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 뿐입니다.

선생님이 개원을 그만두신 후 일주일에 두세번 이병태 치과에 들리셔서 점심을 함께 하시며 옛날 일들을 얘기하시고 학회와 관련된 말씀을 녹음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태 선배마저 저 세상으로 가셨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추모의 글을 올리는 제 자신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선생님은 치과의사학계의 개척자이셨습니다.

1960년 “대한치과의학사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의사학회가 시작 될 때부터 창립 주축이 되셨고 그 후 수년간 학회장으로 일하시며 학회의 기반을 완전히 닦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해 10월 세계최초로 ”대한치과의학사연구지“라는 학술지 창간호를 발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으신 업적이십니까? 선생님은 많은 저서와 활동을 통해 치과의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사료를 힘 안들고 쉽게 얻게 됨은 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선생님은 한국 치의학의 초창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치의학 역사의 산증인이셨습니다.

나이든 치과의사치고 선생님 제자 아닌 치과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1964년부터 서

울치대 치과의사학 강의를 시작으로 경희치대, 연세치대, 조선치대까지 출장하셨으니 모두가 다 제자인 셈이지요.

선생님 선친은 연세대 교수와 초대내각 기획처장을 지내셨고 백부는 증산교 초대교주, 아드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이시니 명문 가문입니다.

이런 혈통 때문인지 선생님께서는 후배들에게 얘기 하실때 항상 정중하시고 겸손하시며 신중하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제가 의사학회장을 맡기 전 저의 병원에 손수 저서 몇권을 들고 찾아오신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잘 부탁한다며 학회 앞날을 걱정하시며 저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도 읽어주는 사람도 사주는 사람도 더구나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 책을 태워 버리셨다고 서운해 하시며 아픈 마음을 토로하셨죠. 저희들이 선생님 뜻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만드신 저서들 週末의 齒科医, 齒學博物諸, 東西齒學見聞記, 韓國齒學史, 西洋齒科醫學史 등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주옥같은 저서들을 지금이라도 잘 챙기고 활용하겠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생님 雅號가 桃丘子(도구자)인데 “桃” 字는 한국풍습상 이름에 잘 사용치 않고 집안에도 복숭아 나무는 잘 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울타리 밖에는 소나무숲이 우거졌고 봄이면 늘 복숭아 꽃이 핀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추억있어 “桃” 字를 썼다도 하셨죠. 선생님 그뜻이 이제야 이해가 되고 선생님 업적이 후학들에게 복숭아꽃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치의학 역사의 개혁자요 선구자이신 선생의 뜻을 잘 기려 발전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변영남

이한수 박사님 영전에 올립니다

| 이 병 태
Lee, Byeong-Tae

이한수 박사님 영전에 읊조립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 병 태

“선생님. 장마가 걷히면 오세요”

“그렇게요.”

손을 흔들며, 꼭 오른손을 흔드시며 문을 나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오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신앙이나 인간애에 대해서는 어찌 제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불모지 같은 사막에 치과의사학이라는 학문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2000년에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50년사를 내자 선생님께서는 한없이 즐거워 하셨습니다.

세계 치과의사학역사학 분야에서는 최초로 1960년에 《대한치과의사학회지》를 발간하신 공로를 어찌 잊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인기가 없고 시선집중이 없는 맨 꼴찌인 치과의사학회를 이끄시면서 평생을 다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73년 《주말의 치과의》 1976년 《이한수의 치학박물지》 1977년 《이한수 동서치학 견문기》를 펴내셨습니다.

일찍이, 치과계에 철학 인문 사회 모든 분야를 치의학에 접목시키셨습니다.

서울하늘에 올림픽기가 휘날리던 1988년, 선생님께서는 치과의사학 교재로 쓰일 《한국치학사》와 《치과의사학》을 저술하여 출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교수도 연구원도 아닌 한 치과 개원의사로서 이런 저술활동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출강하실 뿐 아니라 전국 치대에 출강하셨습니다.

그 열정과 끈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11개 치과대학에 치과의사학교실이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선생님께서도 저도 개탄하였죠.

선생님.

이제 나라에서도 국사를 역사를 내세우려고 한답니다.

선생님.

이방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고장 이순탁 교수께서 대한민국 초대정부에 경제기획처 장관을 지내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그해 남북 당하신 말씀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북치의학교류협회를 조직하여 4명 1조가 매2주마다 DMZ육로를 오가며, 또 두 번에 걸쳐 평양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요.

어느 날 이순탁 교수님이 6.25 그해 10월에 별세하시고 평양인근 특수요역에 안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선생님. 남북통일이 되면 비석을 꺼안고 슬퍼하시고 회한을 푸셔야지요.”

“고맙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파괴와 피해가 선생님 가족의 비탄과 함께하였음을 저는 조금 압니다.

사모님.

저에게 스승같고 하늘같은 이한수 큰 선배님을 먼저 보내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지난날 대가족을 이끌어 오신 사모님과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처음입니다.

선생님.
은퇴하시고 13년간 제게 오실 때 마다 메모했다가 노트북에 입력해서 꼭 보여드리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셨지요.
선생님께서 OK하신 그 양이 A4로 66쪽이 되는군요. 언젠가는 활자화하겠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시던 스톨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선생님. 천당에서 편히 쉬십시오.
명복을 비웁니다.

2013년 7월 22일
대한치과의사학회장 이 병 태

중국 구강의학 사략(史略)

신 재 의
Shin, Jae-Ui

중국 구강의학 사략(史略)

신 재 의

중국의 역사는 유구하다. 기원전 2000~1800 하(夏)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후 황하 유역의 고대 중국문명 은(殷)대 갑골문자를 사용하였다. 기원전 6세기 철학과 사상의 번성기로, 노자(魯子)는 일체의 소유를 버리면 도(道)를 얻는다고 설파하였다. 공자(孔子)는 과거의 가부장제를 회복하여 군주제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고, 조상숭배와 가족윤리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그는 모든 질병이 입을 통해 몸에 들어온다고 표현한 바 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완성했다. 이후 한(漢, 기원전 206~기원후 200년) 시대에 인도에서 불교가 전파되었다. 이민족(서기 400년)의 침공 후 다시 천하를 잡은 것은 수(隋)와 당(唐, 618~906년)이었다. 1211년 징기스칸의 침공 이래 중국은 100년 동안 몽고족의 지배를 받았다. 1368년 성립한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완성하고 그 시대에 풍미했던 지식체계를 모두 망라하여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서양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점차 쇠락하여 1644년 만주족에 의해 정복되었다. 중국의 세력이 정점에 달했던 청나라 시대에 많은 의서가 발간되었다. 이러한 서적들은 당시 의학 수준을 반영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학은 기원전 3세기까지 인도 의학과 격리되어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대 문화권에서 의학이 종교와 혼재되어 있었고 사제와 의사의 역할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중국은 의사 계급이 종교와 구분되어 있었다. 중국 의학의 전통은 신분이 낮은 궁중의사나 학자 및 고급관리의 취미 활동을 통해 유지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 고전의서 「황제내경(黃帝內經)」은 기원전 26세기 경에 통치하였다는 신화적 존재인 황제(黃帝)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의학은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중국의학은 문화적인 이유로 해부와 생리학적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경험을 통해 좋은 약재와 무기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약재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때로는 매미 껍질, 거북 오줌, 곱게 빻은 뽕 등으로 만든 소위 고약(膏藥)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중국 전통의학 중에 구강의학은 충치·치주병·구강외상과 화농성질환을 연구하고 치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이다. 긴 역사 과정 중 구강과는 명칭도 많이 변해 내려왔다. 구치과, 이목구치과, 구치인후과 그리고 민국시대에 아과(牙科, 야커)라고 하였고, 구강과〔口腔科, 귀창커〕명칭은 해방 후 1950년대 이후부터 점차 사용하기 시작했다.

은(殷) 나라 때 여러 가지 갑골문자(예-질구(疾口), 질설(疾舌), 질언(疾言), 질치(疾齒), 치우(齒齬) 등)가 생겨났다.

한(漢) 나라 초에 중국 제일 처음으로 우치 증례를 기재하였다. 한 나라 말 장중경(張仲景)이 쓴《구치론(口齒論)》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없어졌다.

수(隋), 당(唐) 시대의 의료기관 태의서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의학교이다. 5개의 전공분야가 있는데, 이목구치(耳目口齒)가 한 개 과로 되어 있고 의학박사인 교수와 조교, 의사, 의공(醫工) 등이 도와 가르쳤다. 학생 수는 총 학생수의 10%이고, 수업은 4년제이다.

송(宋)나라 때 처음으로 태의서를 세우고, 후에 태의국으로 바꾸어 아홉 개 과를 두었는데 구치인후(口齒咽喉)가 하나의 과로 되었다. 원(元)나라 때에는 의학을 13개 과로 나누었는데, 구치과 혹은 구치인후과가 여전히 있었다.

중국 역대의 구강의학 저작(著作)이 그 수는 10여 종이나 되지만, 그 대부분이 이미 유실되었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구강의학 전문서는 명(明)나라 때 설기(薛己)가 저술한《구치류요(口齒類要)》이다.

중국 최초의 치아 충전술 : 한 나라 때에 것으로 출토된《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중, 이미, 구강질환의 치료인〈치맥(齒脈)〉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치맥을 보면, 느릅나무 껍질과 월계수 등 몇 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아치(牙齒)를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이다.

치과 치료용 약물을 조제 : 장중경(張仲景, 약 150~229)의 저작《금궤요략(金匱要略)》에 치아 치료약으로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를 조제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스푼너(Spooner, 1836)보다 1500년 이상 빠르고,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아직도 이 조제약 치아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구강의학 방면에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이다.

위(魏) 시대의 혜강(嵇康, 223~262)은《양생론(養生論)》을 썼다. 그 중 ‘머리에 있는 이(風, 슬)는 검고, 사향노루는 잣을 먹으니 향이 난다. 목에 위험한 것은 흑이고, 산서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는 누렇다.’는 상황은, 산서지방에서 마시는 물에 비교적 많은 불소가 들어 있어 치아의 만성불소증독증을 일으킨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불소중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황아(黃牙)”인데 과거에는 반유(斑釉, mottled enamel)라고 불렀던 것이다. 반유는 반점치(斑點齒)와 같은 말인데 다만 법랑질 속의 얼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불소와는 관계없는 뜻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불아증(dental fluorosis)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Eager(1901)보다 1600년 넘게 빠른 것이다. 이것 또한 중국 구강의학 사상(史上) 중요한 발견이다.

먼 옛날 진(秦) 나라 때 벌써 언청이 수술법이 있었다. 그러나 진(晉)대에 와서야 문자로 기술할 수가 있었고, 액체식품의 필요성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주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진서(晉書)》에 이를 뽑다가 죽는 예(拔牙致死症例, 발아치사증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 ‘원치아오(溫嶠) 선생은 이에 병이 있어 뽑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중풍에 걸려 죽게 되었다. 시년사십이(時年四十二).’ 이 시대에 이미 이를 뽑는 것과 전신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 나라 때의《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에 ‘발치후유증(拔齒後遺症)’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혈기가 부족한 사람을 발치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저장을 못하고 있으니 어지럽고 답답하다.’ 이것은 이를 뽑은 후의 출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미 지식의 진보가 있었다.

당 나라의 소경(蘇敬) 저《신수본초(新修本草)》(659)에 이미 수은 합금을 이용해 이를 충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백석(白錫)과 은박(銀箔) 그리고 수은(水銀)을 합성하면, 응고된 은과 같아 탈락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영국인 벨(Bell)은 최초로 수은합금을 사용한 것이 1862년이니, 아직 150년도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1350년 전에 이미 수은을 합성하여 이를 충전하는데 사용했다. 이것도 중국 구강의학 방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명이다.

이는 1107년 당진휘(唐慎徽)의「대관본초(大觀本草)」에 다시 언급되었고, 1505년 유문태(劉文泰)의「본초품휘정요(本草品彙精要)」에도 기록되었다. 1596년 이시진(李時珍)의 아말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수은 100, 은 45, 주석 900의 비율로 철제 항아리에 넣고 혼합하여 전치와 구치부 와 동의 충전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아말감의 정확한 성분까지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손사막(孫思邈) 저《천금요방(千金要方)》에 하악관절이 탈골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술자가 손가락으로 턱을 잡아 당긴 후에 점차 밀면 들어가서 회복된다. 이 때 손가락으로 밀어낼 때 물려서 상처를 입기 쉽다.’《천금익방(千金翼方)》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

나무로 술자의 손을 보호하는 방법이 기술되었다.

당 나라 때 이후, 아통(牙痛)치료에 혼아법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천금요방》에 ‘검은 산양의 기름과 침뿌리를 같은 양으로 섞어서 쇠술에 넣고 태워서 연기가 나면 홑접 천으로 머리를 뒤집어쓰게 해 입으로 들어가게 한다.’하였다. 왕도(王燾)의《외태비요(外台秘要)》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침뿌리 세 홑을 준비한다. 그리고 7문 짜리 엽전을 빨강계 달구어 입이 작은 병 속에 담아, 사람의 입에 물게 한다. 병 속 있는 그 동전 위에 침뿌리를 조금 얹어 놓는다. 그러면 소리를 내며 타는데 이 때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뿌린다. 곧 기체가 나오면 그것을 혼치에 사용한다. 차갑게 식으면 다시 해서 세 홑의 약을 다 쓴다.’고 하였다. 조선의《동의보감(東醫寶鑑)》과 일본의《의심방(醫心方)》에도 이 혼아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기구는 동일하지 않다. 청 나라의 태의원(太醫院)에서 이미 은으로 된 혼구를 제조하였다. 큰 약을 통에 넣고 은 호수에 연결시켜 치통부위에 눌러 물게 함으로써 약의 증기를 얻게 하였다. 구강의료 기구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은제 혼아 기구는 지금까지 고궁(故宮) 태의원에 보존되어 있다.

맹선(孟詵)의 저서《식료본초(食療本草)》에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없어지고 이(齒)에 해롭다.’ 이것은 설탕을 먹으면 이에 해롭다는 현재 충치의 원인과 같고 실제적 상황과도 일치한다.

둔황 모까오쿠(敦煌莫高窟, 돈황막고굴)제196동굴의 이 닙는 그림인《게치도(揩齒圖)》와 입을 행구는 그림인《수구도(漱口圖)》는 옛날 중국의 구강위생과 관계가 있는 두 폭의 벽화이다. 구강의학 사적(史的)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참고 가치가 매우 높다.

요(遼) 나라 때에는 구강의학 방면에도 가치 있는 연구 내용이 있다. 과거에는 이를 깨끗하게 하는데 손가락, 치목 혹은 치포(齒布)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요 나라 때에는 오직 칫솔만 있었다.

고궁 박물관에 빼로 된 두 개의 칫솔 자루가 있다. 전시품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열하성 대영자촌 요 임금의 사위 위국왕(衛國王)의 묘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 형태는 현재의 칫솔과 형태가 매우 닮았다. 솔머리 부분의 털 심는 부분이 두 줄이고 여덟 개의 털 심는 구멍이 있다. 이것은 요 시대에는 이미 두 줄로 털 심는 칫솔이 있었던 것이며 그 가능성이 높다. 이 묘지는 1953년에 발견되어 1954년에 출토되었다. 이 묘는 서기 959(요 응력 9)년 목종(穆宗) 시대의 묘지로 밝혀졌다. 지금 약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줄곧 털 심는 칫솔이 송 대에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우리는 먼 옛날 요 대에 이미 매우 합리적인 칫솔을 제조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털 심는 칫솔은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출현했다. 중국에 비해 대략 700년도 넘게 늦은 시기이다. 이것 또한 중국이 구강위생 방면에 미친 공헌 중의 하나이다.

송 대에는 칫솔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보편적이었다. 온혁(溫革)의 저서《쇄쇄록(瑣碎錄)》과 주수중(周守中)의 저술《양생류찬(養生類纂)》에 기재되어 있다. ‘일찍 일어나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들뜬 뿌리와 흔들리는 이를 없애주고 오래된 잇몸 염증을 없애준다. 대개 칫솔은 전부 말꼬리로 만들었다.’ 진자명(陳自明) 저《부인대전량방(婦人大全良方)》(1237) 산후장호법 항목

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혀를 굽으면 안 된다. 피의 역류를 가져온다.’ 1332년 일본에서 중국으로 유학 온 도원선사(道元禪師)는 중국 승려들이 소뿔로 만든 손잡이에 말꼬리가 칫솔로 된 것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불결한 기구이다’라고 했다. 이 견해는 고대에 버드나무가지로 이를 닦는 것을 근거로 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칫솔질의 반대 논술을 볼 때 당시의 칫솔질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 시대의 칫솔을 이해할 수 있다.

원(元)나라의 음선대의(飲膳大醫) 홀사혜(忽思慧, 1330)가 쓴《음선정요(飲膳正要)》에 잠자기 전에 이를 닦고 소금을 이용하는 칫솔질을 서술하였다. ‘아침에 이를 닦는 것 보다 밤에 이를 닦는 것이 낫다. 그러면 치질(齒疾)이 없다.’ 당 나라 때 소금을 이용해 이를 닦으면 구강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소금으로 치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제창했던 것이다.

명(明)나라 때에는 말꼬리 칫솔 이외에 또 종려털로 만든 칫솔도 출현했다. 고렴재(高廉在)의 《준생팔전(遵生八箋)》(1498)에는 ‘종려털로 만든 칫솔로 이를 닦지 말라. 치아가 상한다.’ 청(淸)대 조정동(曹庭棟)이 쓴《로로항언(老老恒言)》(1699)에서, ‘좋은 칫솔을 사용하지 않으면 잇몸과 치아에도 해를 끼친다.’ 칫솔은 식물 종려나 말갈기로 제조한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 은(齲) 조직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다.

1976년 내몽골 저성현(寧城縣)에서 요 시대의 묘를 하나 발견하여 묘비를 완벽하게 출토했다. 거기에는 등연정(鄧延正)의 구강의로 사적(事跡)이 적혀있다.

‘등연정은 음양오행(陰陽五行)과 복서(卜筮) 등 술수(術數)로 사람의 길흉을 따지는데 능했으며, 의술도 뛰어났다. 궁궐로 불러 들어가 황태후의 치아 질병을 진료하였는데 성공적이었다. 그 뒤 황태후의 수행원이 되어 성대한 힘과 부하를 소유하였고 연못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었다. 그는 병에 걸린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치료해 주었다. 공적이 쌓여 절도사에 이르렀으며 공신이 되어 우천우위상장군(右千牛衛上將軍)이 되었다.’

이 비문에서 보면 요 성종(聖宗, 983~1030) 때에 등연정은 황태후의 치아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였다. 그는 가난하고 고독한 자들에게 충실했고 잘 보살펴 주었다.

송(宋)나라 때의 구강의학은 당(唐) 대의 기술을 토대로 매우 발전하였다.《성혜방(聖惠方)》중의 ‘치아 치료는 이가 빠진 곳에 구리로 튼튼히 끝을 고정하는 것이다.’ 등은 모두 중국에서 10세기 경에 실시한 치아재식술이다. 외국의 제일 빠른 재식술은 프랑스의 Fauchard(1722)가 했는데 대략 중국에서 보다 700년 가량 늦은 것이다.

의치에 관한 문헌은 현재까지는 조사에 따르면 송 대의 것이 최초의 것이다. 육유(陸游, 1125~1210)가 쓴《세만유흥(歲晚幽興)》시 중에 나와 있다. ‘묘지를 점치고 관을 짜고 운반하는 데에는 내가 가장 능하나, 수염을 염색하고 이를 심는 것을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리고 ‘요즈음 빠진 이를 해 넣는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구절이 있다.

육유보다 10년 뒤의 루약(樓鑰, 1137~1213)의 저서《공괴집(攻媿集)》의〈증종아진안상문(贈種牙陳安上文)〉에 이렇게 나와 있다. ‘진생술은 천하의 묘한 것이다. 치아에 질병이 있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재주의 손을 들어, 새롭게 바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런한 이빨을 보존하여 편리하게 사용한다.’

그때는 이미 의치 수복은 비교적 흔한 시기였다. 유럽은 18세기에 들어 인아(人牙)·하마아(河馬牙)·상아(象牙)·우골(牛骨) 등으로 의치를 완성하였다. 대략 송(宋)보다 700년 넘게 늦은 시기이다.

1083년(원풍(元豐) 6년) 8월 23일에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동파집권70(東坡集卷70)》에서 차를 마시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늘 자신이 아끼는 것이다. 매번 식사가 끝나면 즉시 항상 진한 차로 애치질(함수·양치질)을 하면 답답한 기름기가 나갈 뿐 아니라, 또한 비위(脾胃)도 모른다. 모든 고기는 이 사이에 낀다. 차로 양치질을 하면 어렵지 않게 빠져나간다. 까다롭지 않고, 게다가 편리한 양치질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는 견고하고 조밀하게a 된다. 잠병(蠶病)은 중하급차를 마셔도 된다. 잠병(蠶病)은 스스로 계속 있지 못하고 며칠 사이에 그칠 것이다. 또한 이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상술하여 말한다.’

차 잎 속에는 불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것이 실증되었다. 일찍이 소동파는 차(茶)를 마시는 것이 충치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1253년 엄화용(嚴和用)이 쓴《제생방(濟生方)》에 구강종양(內疳瘡, 내감창)을 절제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종양의 뿌리를 칼로 절단하여 뽑아낸다. 가열한 기구로 7,8분 지지면 지혈된다.’ 이러한 락철(烙鐵)지혈법은 당 나라 때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명(明)나라의 양계주(楊繼洲)가 쓴《침구대성(鍼灸大成)》(1601)에 ‘침은 반드시 삶은 침으로 세 모서리에 출혈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독하여 감염을 방지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가치 있고 개발된 진보이다.

청(淸)나라 고세징(顧世澄)의《역의대전(易醫大全)》(1686)에 ‘언청이를 수술할 때 마취약을 바른 후, 피부를 절개하고 자수 바늘에 실을 엮어 봉합한다. 근육에 살이 가득하게 생기면 실을 뽑는다.’고 서술하였다.

1668년 유구국(琉球國 : 오키나와, 沖繩, 충승)의 위사철(魏士哲)이 당시 38세 때 서쪽의 물을 건너 복주(福州)로 와서 명의 황금발(黃金發)에게 중국식 수술법을 배웠다. 그리고 귀국하여 유구국(琉球國) 왕의 손자와 다른 환자 6명을 시술하였는데 흉터도 남지 않고 완쾌되었다. 이것은 당시 언청이 수술에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건륭(乾隆)시대 량옥승(梁玉繩)이 쓴 저서《백사집(白士集)》27권에서 말했다. ‘지금 시내의 상점엔 치아를 해 박는 집(補齒鋪, 보치포)이 있다. 걸린 간판에는 ‘의치를 하니 진짜와 같다.’고 쓰여 있고 ‘이런 일은 송(宋) 이래로 계속 있다.’고 하였다.《칠수류고(七修類稿)》에 치아에 관한 말이 있다. 오늘날 이를 보철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얼마 후 치아재식술과 안장의치(按裝義齒)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 설명은 중국의 수복 방면은 이미 상당히 선진적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18세기 이후, 서양의학 기술이 중국에 들어옴에 따라, 중국 구강의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 그 발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구강의학 방면은 구강내과학(아체병·아수병·아주병·구강점막병 등 학과), 구강외과학(아조골·합면·종류·정형 등 학과), 구강교형과학(총의치·국부의치·관교 등 학과), 구강정기과학, 구강예방보건과학, 구강의사학 등 다방면의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미 일군의 구강의학 전공인원을 양성했고 그 중 또 한 무리의 전문가가 출현하였다. 구강질환치료에 침구와 중약치료를 응용하여 중의학(中醫學)과 서양의학(西洋醫學)이 결합하여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중국 성립 후의 구강의학의 문제점과 특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구강의학은 세계 선진국가에 비교한다면 낙후한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10억(1986년 현재)의 인구인 대국인데 단지 1만 명 정도의 구강과목의사가 전국 인민 구강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구강의학원이 부족하다. 중국이 해방 전에는 5개소의 구강의학원이 있었고, 1984년에는 22개소로 증가하였고 1986년에는 모두 해야 간신히 30개소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와서는 33개소로 증가하였다. 교사(교수), 교사(학교)설비 등이 아직도 비교적 부족하고 모집 학생의 수 많지 않다. 구강의학 교육 발전에 아직 많은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구강의학 서간(書刊)이 아주 적은 것이다. 바로 구강의학의 과학 보급도서가 많지 않았

다. 건국 후 출판된 구강과 교과서와 참고서가 단지 200여 종이였다. 구강의학 정기간행물을 말하면 각종 서적 안의 것을 포괄하여 단지 15종이었다. 마지막 하나를 말하면 비정기 발행의 내부간행<아치보견지우(牙齒保健之友)>인데, 자금 출처는 전부 구강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기부로 유지하였다. 기타 구강과잡지는 모두 계간이고, 오직<중화구강과잡지(中華口腔科雜誌)>만이 1986년에 비로소 격월간을 시작했다. 잡지는 연기되어 출판되는 것이 자주 있다. 구강의학 출판물 방면에서 보면 구강의학이 발달한 미국, 일본 기타 여러 나라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형편이다.

〈교신저자〉

- 신 재 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71-16
- Tel. 02-3679-1084, Email: allens@kornet.net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영국 여행

(The history of dentistry : U.K. Tour)

| 권 훈
Kweon, Hoon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영국 여행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Museum

1. 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London)
2. British Orthodontic Society Museum (London)
3. Hunterian Museum (London)
4. Wellcome Library(London)
5. Victoria Gallery & Museum (Liverpool)
6. Surgeon's Hall Museum (Edinburgh)

Spot

1. Stonehenge(Salisbury, Wiltshire)
2. Jane Austen Center(Bath)
3. Harley Street(London)

Story

1. William Addis(1734~1808)
2. Sir Johnn Tomes(1815~1895)
3. Lilian Lindsay(1871~1960)

머리말

영화 트립 투 잉글랜드(2015)의 카피 문구 “Trip maketh man.”가 인상적이다. 여행이 사람을 만든다. 여행을 해보면 그 말이 진리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사실 이 멘트는 영화 킹스맨(2015)에 나온 명대사 “Manners maketh man.”에서 단어만 바꾼 것이다. 매너 대신에 치아(Teeth)를 넣어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Teeth maketh man.”

트립 투 잉글랜드는 2명의 중년 남성이 영국 북부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하며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다.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긴 워즈워스에게도 치아 스토리가 있다¹⁾. 시인의 친구가 48세 워즈워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을 때였다. 의치 때문에 모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고 하여 의치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대한 시인은 초로한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치아가 사람을 만든다.”의 전형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여행과 치아를 콜라보하는 여정을 몇 년째 실행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사명감으로 무장된 르뽀가 되어버렸다. 일상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치과의사학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치과의사 직업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 중이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2003)에서 물고기 니모는 열대어 수집이 취미인 치과의사 다이버에게 잡혀서 시드니 항구가 내다보이는 치과 수족관에 갇히게 된다. 영화는 아빠 물고기 말린이 아들 니모를 구하기 위해 여행길에 나서 결국엔 아들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많은 치과의사들이 니모와 똑같은 처지일 수 도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무척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추억도 있는 과정이다. 본 고에서는 치과의사학을 공부하면서 영국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Museum

1. 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London)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치과의사 면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에 이발사, 가발 제작자, 대장장이 및 약제상이 치과진료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 치아를 치료하는 사람에게 tooth puller or drawer, dentator, operator for the teeth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다. 영국은 1860년 LDS(License in Dental Surgery) 시험이 시행됨으로써 공식적인 치과외과의라는 직업이

탄생하였다²⁾. 또한 1878년에는 General Medical Council의 주도하에 치과의사 등록을 위한 Dentist Act of 1878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한 치과의사들만이 개원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을 위한 단체 BDA는 1880년에 설립되었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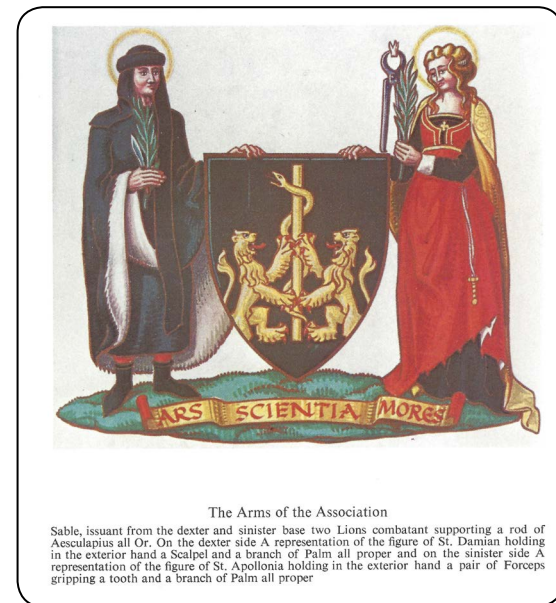


그림1 : 영국치과의사협회 문장(The Arms of BDA) : 좌측에는 치료의 수호성인 St. Damian, 우측에는 치과의 수호성인 St Apollonia가 서있다.

ARS(Art), SCIENTIA(Science)와 MORES(Moral)을 뜻한다. 1930년에 BDA 문장이 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영국치과의사협회 회관은 1880년 레스터(Leicester) 광장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시작되었고, 몇 차례의 이사를 거쳐 현재는 뎀플(Wimpole) 스트리트에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³⁾. 협회 건물 1층에 유구한 치의학 역사를 알려주는 작고 아담한 BDA Dental Museum이 있다(그림2). 현재 박물관이 소장중인 유물은 30,000점을 넘었고 앞으로도 기증에 의해 그 숫자는 계속 증가될 예정이다.

치과의사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키고 BDA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James Smith Turner(1832~1907)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34년 설립된 Smith Turner Historical Museum이 BDA 치과 박물관의 시초라 할 수 있다⁷⁾. 그러나 1920년부터 BDA 명예 도서관 사서로 근무 중이었던 여성 치과의사 Lilian Lindsay는 치의학과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하고 기증도 받고 있었

대한치과의사협회(KDA)는 로고(Logo),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엠블렘(Emblem), 영국치과의사협회(BDA)는 문장(Coat of Arm)이 각 단체의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BDA의 문장에는 특이하게 치과 환자와 치과의사의 수호성인 아폴로니아(Apollonia)와 치료의 수호성인 다미안(Damian)이 그려져 있다(그림1)⁵⁾. 치과의사들은 Saint Apollonia를 직업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치통이 있을 때 성녀의 전갈을 간청하곤 한다^{참6)}. 수호성인 다미안은 코스마스와 쌍둥이 형제이며 모두 의사였다. 형제들은 의술이 매우 뛰어나서 모든 병든 사람을 치유했고 보상을 바라지 않아 오랫동안 추앙받아 왔다. 하단에 라틴어로 써져있는 단어는

다. 이러한 물건들을 BDA 도서관에 이미 전시하고 있었기에 치과 박물관은 1934년 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되었다.

1935년 조례가 변경되면서 도서관과 박물관 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 두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명예 큐레이터로 임명된 Dr. George Northcroft은 해박한 지식과 역사적인 안목으로 유물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나열식 박물관이 아닌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치과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⁸⁾. 박물관은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인한 물난리 때문에 전시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지만 Mr. J.B. Parfitt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박물관이 재탄생하였다. 1988년 명예 큐레이터로 임명된 Dr. Stanley Gelbier는 전문적인 박물관 큐레이터 Julia Marsh를 채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여 매년 12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였다^{9,10)}.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는 John Tomes와 Alexander Nasmyth(?~1848)가 1800년대 사용했던 목직한 나무로 제작된 치과 체어가 있다⁷⁾(그림3). Nasmyth의 절친이었던 Sir Edwin Saunders(1814~1901)는 에드워드 4세를 치료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치과 기구도 이 박물관의 소유물이다. Saunders는 또한 빅토리아 여왕의 치과 주치의였으며 영국에서 최초로 기사 작위를 받은 치과의사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치과 유물들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2014년에는 Arts Council England로부터 공인된 박물관 지정을 받아 치과 박물관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림2 : BDA Dental Museum 전시실



그림3 : 영국 치의학의 아버지 John Tomes가 1800년대에 사용했던 치과 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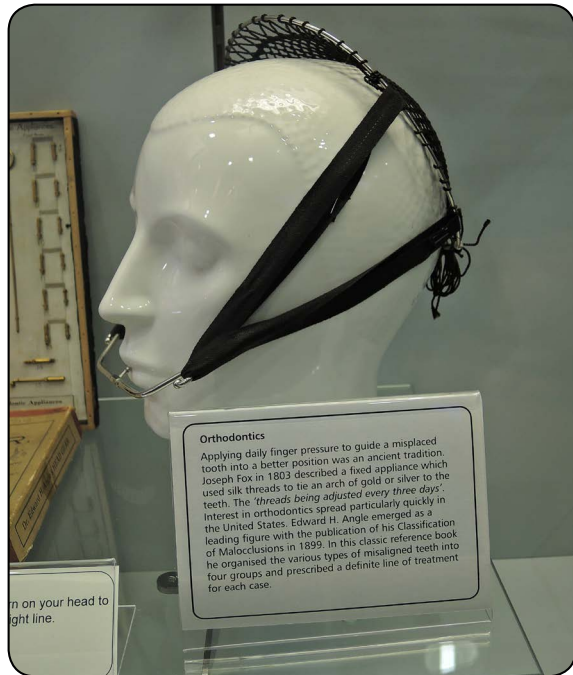


그림4 : 19세기초에 Joseph Fox가 고안한 교정장치

2. British Orthodontic Society Museum (London)

세인트 폴 대성당(St. Paul's Cathedral)에서 서쪽으로 500여 미터를 걸으면 치과 교정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British Orthodontic Society Museum을 만날 수 있다. 1907년 창립된 영국치과교정의사회는 107년 동안 치과교정과 관련된 2000여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치과교정 박물관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데 다행히 홈페이지(www.bos.org.uk)를 방문하면 온라인 상에서 18세기에 사용된 교정 장치, 재료 및 기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교정 치료가 언급된 고서 즉 Fauchard's Le

Chirurgien Dentiste, Fox's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와 Tome's A System of Dental Surgery등을 수장하고 있다.

치과교정학의 초창기 역사에서 영국 출신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공헌이 눈부시다. John Hunter(1728~1816)는 불규칙한 치아 교정을 위해서는 혼합 치열기에 차단 교정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¹⁾. 헌터의 제자 Joseph Fox(1776~1816)는 1803년 최초로 부정교합을 분류하였고 유치의 연속 발치술을 주장하였다(그림4). 또한 ivory block bite에 금 또는 은 강선을 첨가하여 전치부 반대교합을 치료하였다¹²⁾. 반면 영국치과의사협회 초대 회장이었던 Sir John Tomes(1815~1895)는 ivory plate보다는 silk ligature가 첨가된 metal plate를 선호하였다. 그는 개방교합 치료를 위해서 head chin caps 사용을 추천하였다.

3. Hunterian Museum (London)

Incisors, Cuspids, Bicuspids and Molars와 같은 치아 28개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치과 의사가 아닌 영국의 해부학자이며 외과의사인 John Hunter(1728~1793)이다¹³⁾. 그는 외과학, 의학 교육, 치의학, 병리학 및 수의학 등 다방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부학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8세기까지 인체 해부학에 관한 지식이 외과 수술에 적용되지는 않았

다. 헌터는 해부학적 지식을 수술할 때 사용하였고 30년 동안 13,000점의 인체 및 동물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Royal College of Surgeons는 그의 사후 20주년을 맞아 헌터의 수집품을 전시할 수 있는 Hunterian Museum을 1813년에 설립하였고 이곳은 대영박물관에서 도보로 15분이면 갈 수 있다¹⁴⁾.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입구에 들어서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중인 헌터 동상을 만나게 된다(그림5). 매년 신규 외과 의사들은 헌터 동상 옆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것만으로도 외과학에서 의학헌터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¹⁵⁾. 영국에서 헌터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런던 서쪽 끝에 있는 레스터 광장 공원에 다섯 명의 동상이 서있는데 헌터도 포함되어 있다. William Shakespeare(1564~1616), Charlie Chaplin(1889~1977), Sir Isaac Newton(1643~1727), Sir Joshua Reynolds(1723~1792), William Hogarth(1697~1764). 또한 헌터는 1776년에 조지 3세의 특별한 주치의로 임명되었고 사후에는 Westminster Abbey에 안치되어 있다.

헌터 박물관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unter collection, Odontological collection, Historical Surgical Instrument Collection이 크리스탈 장식장에 전시되어 있어 더욱 화려하게 보인다(그림6). 의사인 헌터는 뼈, 치아와 악골에 흥미를 갖고 왕성한 연구를 하여 치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제인 오스틴이 불신하였던 치과의사 James Spence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치아우식증, 치아 질환과 치통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하였다. 치아에 관한 두 권의 저서 The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1771)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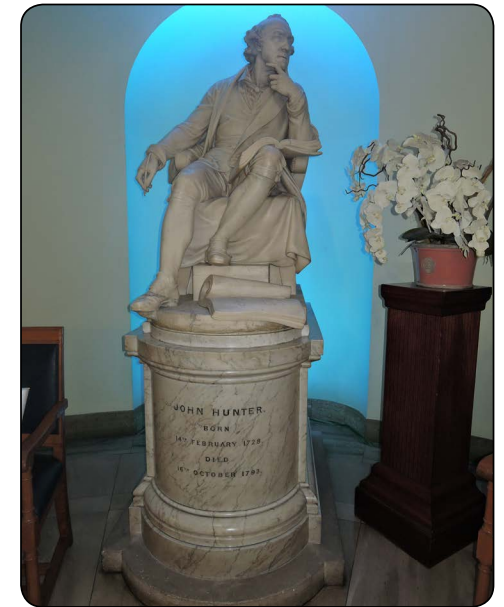


그림5 :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입구에 있는 존 헌터의 동상



그림6 : 헌터 박물관 전시실

A Practical Treatise on the Disease of the Teeth(1778)를 남겼다. 첫 번째 책에서는 치아에 이름을 지어주었고 두 번째 저서에서는 치아의 이식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헌터는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1767년 Earls Court에 해부 실험과 표본을 저장할 수 있는 집을 지어 살다가 1783년에는 연구와 강의도 겸할 수 있도록 Leicester Square에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곳에서는 작가, 시인과 음악가를 초대하여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작가 Robert Louis Stevenson은 헌터의 집을 모티브로 하여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을 탄생시켰다. 소설에서 지킬 박사는 헌터처럼 실험실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 이 소설은 인간의 양면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⁵⁾. 헌터의 집뿐만 아니라 헌터의 인생도 소설과 비슷한 것 같다. 지킬 박사처럼 과학적 수술의 창시자로 칭송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았지만 성격은 하이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헌터는 반항적이고 까다로운 성향 때문에 그의 형 William Hunter와 태반 혈액 순환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었다. 두 사람은 형 윌리엄 헌터가 사망할 때 까지 화해하지 않았고 그의 형은 그 시대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림7 : Phossy Jaw(인산 괴사)

헌터 박물관은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전시물의 2/3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치의학적으로 귀중한 유물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중에 ‘Phossy Jaw’와 윈스턴 처칠의 틀니가 흥미롭다. 19세기 후반에 창립된 영국치과의사협회는 공중 건강을 위해 실행했던 다양한 사업 중 하나가 산업 근로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특히 성냥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서 원인 모를 구강 내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었다. 만성 통증, 농양, 치은 종창, 치아 상실 및 안면부 변형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고 결국 감염된 악골은 외과적으로 제거되었다(그림7).

영국에서 예방치의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조지 커닝엄(George Cunningham, 1852~1919)은 성냥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불꽃에 포함된 인산(phosphorus)이 체내로 흡입되고 주로 하악골에 침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⁴⁾. 공장 근로자를 역학 조사한 결과 건강한 구강을 가진 사람

에서는 인산이 어떤 유해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치아우식증, 치주병 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증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다른 대체 물질로 교체되어 더 이상 인산괴사는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과 골다공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에 bisphosphonates가 포함되어 있어 악골 괴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1732~1799)은 자신의 틀니에 관한 수많은 일화가 있었다(참 16, 17).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0년 5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1874~1965)은 의회에서 특별한 틀니를 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 연설은 영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 전쟁으로부터 세계를 구한 것은 처칠이 아니라 처칠의 틀니라고 혹자들은 말한다.

처칠은 상악 전치부 4개(#11, 12, 13, 21)와 소구치 2개(#24, 25)에 상실치가 있었다¹⁵⁾. 직업적으로 정치인이기에 틀니에 무척 예민하였고 연설 도중 틀니가 헐렁거리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다. 또한 처칠은 치찰음 ‘S’를 과장해 발음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치과의사중 한명인 Wilfred Fish(1894~1974)가 처칠에게 보철 치료를 시행하였다. 틀니는 gold base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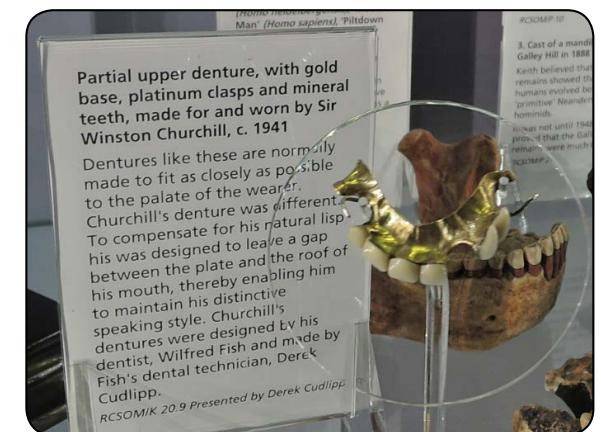


그림8 : 윈스턴 처칠의 틀니

platinum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clasp으로 제작되었으며 틀니의 구개부 플레이트를 많이 삭제하여 구개와 입천장 사이에 공간을 보존하였다. 이유는 처칠의 개성인 혀짧은 소리(lisp)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틀니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3개가 제작되어 처칠이 교대로 사용하였다. 처칠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틀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곤 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공사 Mr Derek Cudlipp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처럼 전쟁기간동안 망가진 틀니를 고치는데 사투를 벌였다. 처칠이 장착했던 틀니 중 한 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고, 또 다른 한 개는 2010년 영국 경매시장에서 15,200 파운드에 판매되었고, 마지막 한 개는 헌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8).



그림9 : Wellcome Collection 전시실

Wellcome(1853~1936)이 평생 동안 수집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다(그림9). 영국의 다른 박물관에서도 웰컴의 존재감은 드러나는데 대영박물관 24번 전시실은 Wellcome Trust Gallery, 과학박물관에도 Wellcome Wing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공간이 있다.

사업으로 성공한 웰컴의 열정은 수집으로 이어졌고 특히 의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의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물건이든 수집하였고 영역을 넓혀 의학 서적도 구입하였다. 그는 1936년 모든 재산을 기부하여 의학 연구를 지원하는 Wellcome Trust를 설립하였다. 현재까지도 이 재단의 지원으로 Wellcome Collection, Wellcome Library와 Wellcom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edicine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의 역사 알림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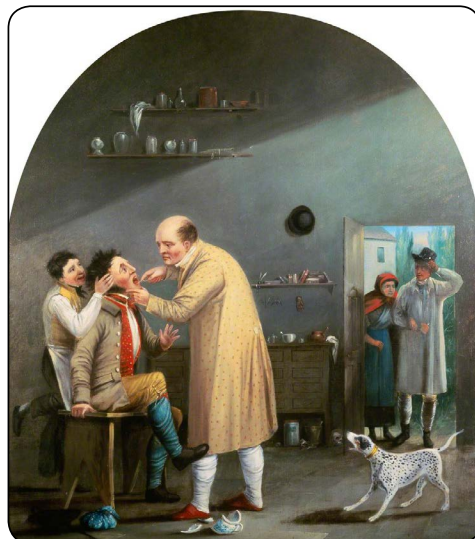


그림10 : A Country Toothdrawer(S. Cox)

화질의 Wellcome image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의학의 역사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림10).

4. Wellcome Collection(London)

의학과 삶과 예술을 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그런데 명칭에 museum 또는 gallery가 없고 사람의 성을 따서 박물관의 이름은 Wellcome Collection 이다. 이곳은 미국에서 태어나 1878년 영국으로 이주하여 제약회사를 세워 백만장자가 된 Henry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1976년 과학박물관에 11만 4천점의 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했다¹⁸⁾. 2007년에 개관된 웰컴 컬렉션의 1층에는 의학에 심취한 사람(Medicine Man)이라는 전시실에서는 의학의 관점에서 본 인류문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획 전시실이 있는 지상층과 2층 도서관까지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되므로 대영박물관에서도 보로 10분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멀지 않기에 의료인이라면 꼭 둘러볼만한 장소이다. 컬렉션 중에서 치의학과 관련된 유물도 3천여점이 넘는데 2014년부터 Wellcome Library에서 제공하는 고

5. Victoria Gallery & Museum (Liverpool)

영국 북부의 리버풀은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즈(Beatles)의 고향이기에 비틀즈의 팬이라면 꼭 한번 가야할 낭만적인 도시이다. 알버트 독 (Albert Dock)에 있는 비틀즈 스토리(Beatles Story)는 비틀즈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있는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가볼만한 곳이다. 비틀즈의 리드 보컬인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치아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2011년 영국 오메가 경매시장에서 존 레논의 어금니 한 개가 캐나다 치과의사이자 치아 수집가인 Michael Zuk에게 무려 3500만원에 팔렸다¹⁹⁾. 이 치아의 원래 주인은 존 레논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였다. 1960년 후반 존 레논은 치과에서 발치한 치아를 기념품으로 가정부에게 주었고 다시 가정부는 비틀즈의 열성 팬인 자신의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 레논의 치아는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치아를 구입한 치과의사는 미국의 과학자들과 함께 존 레논의 치아를 통해 유전자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치아로부터 유전자 코드를 추출하여 존 레논 유전자의 완전한 염기 배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하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일단 기다려 볼 만한 과학적 도전이다.

리버풀 대학 교정에 있는 Victoria building은 빨간 벽돌, 웅장한 아치와 상징적인 타일이 고풍스럽게 보인다. 이 건물은 빅토리아 여왕 재위 50주년을 기념해서 건축이 시작되어 Victoria building이라 명명되었고 이 건물 안에 Victoria Gallery & Museum이 있다. 박물관 2층에 있는 Victorian dental surgery에 치과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리버풀 대학의 치과 박물관은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880년 치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박물관은 5명의 큐레이터가 근무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였다²⁰⁾. 그러나 1904년 박물관 직원 중 한 명인 Mr H. W. P. Bennette가 박물관을 인수한 이후 3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치과대학의 세미나 룸 필요성 때문에 모든 전시물이 폐관된 도서관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Weaver 가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박물관은 1983년에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때 박물관의 전시 유물은 시각적 효과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되어져 치과의사학에 대한 식견을 제공하였다. 이 박물관의 또 다른 기능은 치과의사들에게 개방되어 사교 및 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치과 박물관에 있던 많은 유물들은 2009년에 개관한 Victoria Gallery & Museum으로 이동되어 현재까지 일반인에게도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틀니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ivory denture, ivory and bone base with natural teeth or porcelain teeth, metal base with ivory, natural or porcelain teeth, denture, vulcanite celluloid, acrylic & chrome cobalt denture)(그림11). 17세기부터 서유



그림11 : Victoria Gallery & Museum에 전시된 틀니의 변천사

Glasco는 틀니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치아 때문에 아픈 일은 없어졌지만 더럽고 냄새가 나는 틀니가 이제 고민이다. Glasco는 6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양(mutton) 뼈로 제작되었다. 틀니가 음식을 먹을 때는 쓸모가 없고 외견상으로는 그럴 듯하다. 그는 낮에는 틀니를 장착하고 있고 밤에는 빼고 있다.



그림12 : Surgeons' Hall Museum 입구

Surgeons' Hall Museum(의학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은 에딘버러 왕립 의과대학(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dinburgh)이 운영하고 있다. 의학 박물관은 1505년 왕립 의과대학 개교와 함께 설립되었고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면서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으며 의학 및 치의학의 변천사를 대중에

렵에서 설탕 소비가 증가하면서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틀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제작된 틀니로는 저작이 불가능하였고 단지 심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1600년대 중반에 시인 Robert Herrick(1591~1674)이 지은 시에서 그 시절 틀니의 가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원문은 아래에 소개하고 간단하게 시를 해석해본다.

Glasco had non, but now some teeth has got;

Which though they furre, will neither ake, or not.

Six teeth he has, whereof twice two are known

Made of a haft, that was a mutton bone.

Which not for use, but merely for the sight

He wears all day, and draws those teeth at night.

- Robert Herrick(1591-1674), Poet -

6. Surgeon's Hall Museum (Edinburgh)

에딘버러 성에서 도보로 20여분 거리에

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장소이다. 2014년 Lister Project로 박물관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어 2015년에 완성되면서 Surgeons' Hall Museum은 3개의 전시실(The Wohl Pathology Museum, The History of Surgery Museum, The Dental Collection)로 구성되어 있다(참21)(그림12).



그림13 : John Menzies Campbell(1887~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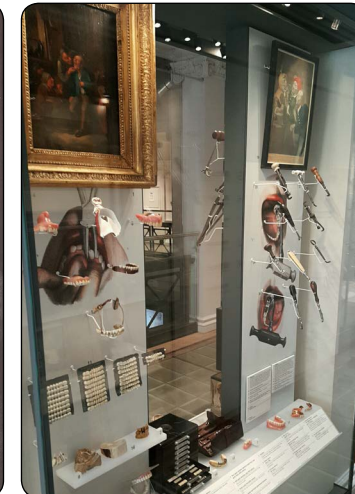


그림14,15 : Surgeons' Hall Museum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 내부

Surgeons' Hall Museum의 2층에 작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치과 전시실(dental collection)이 있다. 이곳의 주요 전시물은 치과의사 John Menzies Campbell(1887~1974)의 공헌에 의한 것이다(그림13). 그는 40여 년 동안 수집한 치과 도구, 치의학과 관련된 그림 및 인쇄물을 1964년 에딘버러 왕립 의과대학에 기증하였고, 유물들은 'Menzies Campbell Dental Collection'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치의학 박물관의 형태로 독립된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tooth extraction, tooth maintenance and repair, Dental training, Dentistry : Home mouth care, Modern dentistry등과 같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이곳은 다른 치과 박물관과 달리 16~19세기까지 그림들이 꽤 많이 걸려있었다. 그림을 통해 그 시절의 치과 진료 장면과 예술가의 눈에 비친 치과의사의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그림14,15).

John Menzies Campbell(1887~1974)은 Glasgow Dental School을 졸업한 후 191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²²⁾. 그는 토론토에서 치의학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1912년 글래스고로 다시 돌아와 41년 동안 치과 개원의로 살아가면서 250편의 치의학 역사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다. 치의학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 덕택으로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과 사학자(dental historian)가 되었고 극히 이례적으로 30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에딘버러 왕

립 협회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치의학 고서들을 영국 왕립 의과대학 도서관에 기증하여 첫 번째 영국 왕립 치과의 명예회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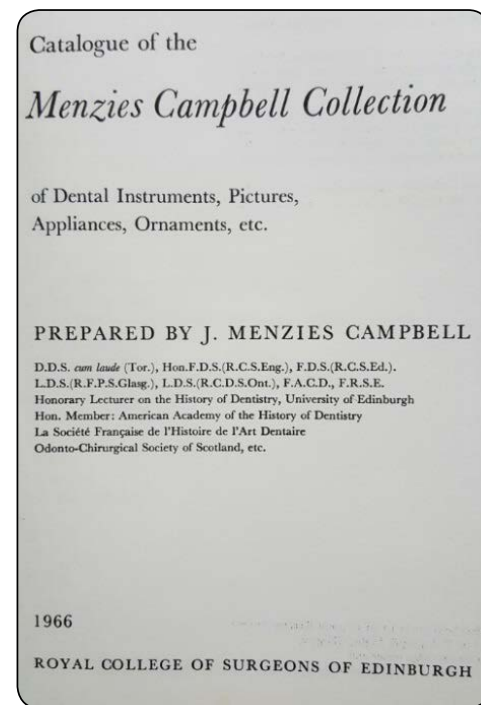


그림16 : 캠퐀의 저서 Catalogue of the Menzies Campbell Collection(1966)

Menzies Campbell은 두 권의 저서를 남겼다. Dentistry then and now(2nd edition, 1963)는 치과 역사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치과의사의 지위와 위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출판되었다. 두 번째 저서(Catalogue of the Menzies Campbell Collection, 1966)은 굉장히 독특한데 그동안 모은 자신의 수집품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언급되어 있고 특히 수집품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²³⁾, (그림16).

Menzies Campbell과 Margaret W. Shirlaw(1893~1990)은 부부 치과의사이며 치과 의사학적 측면에서는 부창부수이다. 그녀는 남편의 사후에도 치과와 관련된 유물 수집을 계속하였고 치과의사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남편의 저서인 Dentistry then and now의 개정 확대판을 자비를 들여 출판하였다. 또한 글래스고, 에딘버러와

던디(Dundee) 치과대학에서 치과의사학 강의를 하면서 남편의 유지를 끝까지 따랐다.

Spot

1. Stonehenge(Salisbury, Wiltshire)

영국 현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관광 상품 중에 ‘바케스’ 투어가 있다. 바케스는 양동이를 뜻하는 bucket의 일본식 발음 표현이며 한국에서도 흔하게 사용되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영국 여행에서 바케스는 바스(Bath), 캐슬콤(Castle Combe)과 스톤헨지(Stonehenge)를 하루에 둘러본다고 해서 바케스 투어라고 불리운다. 그중에 스톤헨지와 바스에 치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어 이야기 하고자한다.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윌트셔(Wiltshire) 주 솔즈베리(Salisbury) 평원에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석 기념물이다. 이 유적은 기원전 3100~1600경에 1500년 동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가 8미터이고 무게가 50톤인 돌로 제작된 스톤헨지는 말그대로 경이롭다(그림17). 스톤헨지의 용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종교 행사를 위한 사원, 천체 관측을 위한 전망대, 계절을 예측하는 달력, 병자를 위한 요양소, 조상을 숭배하는 장소, 중요 인물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다¹⁵⁾.



그림17 : Stonehenge

스톤헨지 주변 두 곳의 무덤에서 40대 남성(기원전 2400~2200)과 14~15세(기원전 1500) 소년의 유골이 발굴되었다¹⁵⁾. 유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아가 사용되었는데 그 근거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마시는 물에 있다. 음용수에는 손지문과 같은 특별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치아와 뼈에 있는 물의 화학적 성분과 구성 요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한 개의 원소는 동일한 숫자의 양성자(protons)와 중성자(neutrons)를 갖는다. 99.7%의 산소는 각각 8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는 ¹⁶O라 하며, 아주 극소량인 0.2% 산소는 8개의 양성자와 10개의 중성자를 갖는 ¹⁸O이다. 이처럼 다르지만 안정된 원소의 형태를 동위원소(isotopes)라고 한다.

음용수는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든 후 땅에 내린 비로 구성된다. ¹⁸O은 바다와 가까운 열대성 기후를 갖는 지역에서, ¹⁶O은 온도가 낮은 극지방에서 주로 발견된다. 물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은 위도, 수온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산소의 동위원소는 발육중인 치아와 뼈에 혼합된다. 지구에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지역별로 안정된 숫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치아와 뼈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맞추어보면 유골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40대 남성(기원전 2400~2200)의 치아를 산소 동위원소로 분석하였더니 그는 스톤헨지 주민이 아니었다. 알프스 산에 인접한 스위스,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반면 14~15세(기원전 1500) 소년은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가 발달한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례는 스톤헨지가 국제적인 교류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치아와 뼈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우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특징이 있기에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

한 지속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18 : Bath에 있는 The Jane Austen Center

2. Jane Austen Center(Bath)

바스(Bath)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2시간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휴양 도시이다. 목욕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계획도시인 바스에서 제인 오스틴(1775~1817)은 휴양을 하면서 1801년부터 1806년까지 두 곳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첫 번째 집은 제인 오스틴 센터로 꾸며져 있고(그림18), 두 번째 집은 치과의원으로 진료중이다.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과 ‘이성과 감성’등을 통하여 19세기 영국 남녀의 사랑을 그린 소설을 집필하면서 세계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인 오스틴이 언니 카산드라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19세기 초 영국 치과 임상 단면이 잘 설명되어 있다²⁴⁾.

1813년 9월 어느 날 제인 오스틴은 런던에 개원중인 치과의사 Mr. James Spence를 만났다. 환자가 아니라 치료 받으러 간 3명의 조카(Lizzy, Marianne, Fanny) 보호자로 치과에 갔다. 제인

오스틴의 편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James Spence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James Spence는 외과의사 John Hunter(1728~1793)의 제자이며 런던 Guy's hospital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의학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한 후 1770년대에 Soho Square에서 개원하였던 치과의사였다. 또한 영국 왕 조지 3세의 치과주치의를 지냈으니 그 시절 꽤 명성을 떨쳤던 치과의사였지만 제인 오스틴에 비친 제임스 스펜스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제인 오스틴의 편지 원문을 아래에 소개하고 19세기 초에 오스틴의 조카 Lizzy, Marianne과 Fanny에게 어떤 치료가 시행되었는지를 알아본다²⁵⁾. 먼저 Lizzy는 3번의 내원 끝에 전치부에 발생한 우식이 제거되고 금 충전 치료가 시행되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 Lizzy는 슬픔과 눈물에 잠겨 있었는데 Marianne의 고통에 비하면 약과다. Marianne은 어떠한 마취도 없이 구치부 2개가 발치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 또한 발치된 공간에 다른 사람의 치아가 이식될 때 까지 공포의 도가

니에도 빠져있어야 했다. 3명중에 가장 건강한 치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Fanny에게도 금 충전 치료가 필요했다. Lizzy와 Fanny은 tooth cleaning 즉 스켈링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인 오스틴은 편지에서 이처럼 다짐하였다. “I think he must be a Lover of Teeth & Money & Mischief to parade about Fannys. I would not have had him look at mine for a shilling a tooth & double it.” 제인 오스틴을 왜 치과의사를 이토록 강하게 불신하게 되었을까? 그 시절에는 치의학이 아직 걸음마를 걷고 있었기에 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인의 치아 이식을 제외하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치과의사의 태도(Attitude)가 제인 오스틴으로 하여금 그러한 편견을 갖게 하지 않았나 싶다.

운명의 장난일까? 제인 오스틴과 치과의사의 만남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년이 지났어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녀가 두 번째로 머물렀던 바로 그 집은 현재 치과의원으로 진료중이고 치과 앞은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라고 한다(그림19). 2017년에는 제인 오스틴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영국 지폐 10파운드 인물로 제인 오스틴이 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만과 편견에 나온 문장은 치과의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림19 :제인 오스틴이 바스에서 두 번째 머물렀던 현재 치과의원으로 진료중

Wednesday 15 – Thursday 16 September, 1813

Going to Mr. Spence's was a sad business & cost us many tears, unluckily we were obliged to go a second time before he could do more than just look; we went first at half past 12 and afterwards at 3. Papa with us each time &, alas! we are to go again tomorrow. Lizzy is not finished yet. There have been no Teeth taken out however, nor will be I believe, but he finds hers in a very bad state, & seems to think particularly ill of their durableness. They have been all cleaned, hers filed, and are to be filed again. There is a very sad hole between two of her front teeth.

The poor Girls & their Teeth!

I have not mentioned them yet, but we were a whole hour at Spence's, & Lizzy's were filed and lamented over again & poor Marianne had two taken out after all, the two just beyond the Eye teeth, to make room for those in front. When her doom was fixed, Fanny Lizzy & I walked into the next room, where we heard each of the two sharp hasty Screams, Fanny's teeth were cleaned too & pretty as they are, Spence found something to do to them, putting in gold & talking gravely & making a considerable point of seeing her again before winter; he had before urged the expediency of L. & M.s being brought to Town in the course of a couple of Months to be farther examined, & continued to the last to press for their all coming to him. My brother would not absolutely promise. The little girls teeth I can suppose in a critical state, but I think he must be a Lover of Teeth & Money & Mischief to parade about Fannys. I would not have had him look at mine for a shilling s tooth and double it. It was a disagreeable hour.



그림20 : 런던 의로계 명리의 거리 Harley Street

손과 철자가 똑같다. 1860년대에 20여명의 의사들이 할리 스트리트에 개원을 하였는데 세계 1차 대전 무렵에는 의사의 숫자가 200명을 돌파하였고, 2차 대전 후에는 1500명, 현재는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런던의 중서부에 있는 말리본(Marylebone)에 의로계의 명품 거리가 만들어진 이유로는 첫째 Marylebone과 King's Cross 역이 근처에 생기면서 교통이 편리하였고 둘째로는 부유층이 거주할만한 멋진 집들이 건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할리 스트리트에 개원한 의사들 중에서 명

3. Harley Street(London)

소아치과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 있다. “You have Ferrari in Cars, Harley-Davidson in Bikes and Stainless Steel Crown in Pediatric Dentistry.”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성관이 명품 치료임을 이해하기 참 쉽게 해주는 문구다. 런던의 대표적인 명품 거리인 리젠트(Regent) 스트리트를 따라 옥스퍼드 서커스 방향으로 15분 정도를 걸으면 이번에는 메디칼 명품의 거리인 Harley Street에 다다른다(그림20). 명품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 데이비

의(名義)들이 많기 때문이다²⁶⁾. 클로르포름 마취를 발명한 Joseph Clover(1825~1882), 허친슨 병(청력 손상, 시력 손상, 톱니처럼 뾰족한 기형치아)을 발견한 Sir Jonathan Hutchinson(1828~1913)과 근대 외과 수술의 개척자인 Joseph Lister(1827~1912)등이 이곳에서 진료했던 의사들이다. 유명한 치과의사로는 Bennett angle과 Bennett's movement를 발견한 Sir Norman Godfrey Bennett(1870~1947)이 있다. 미국 미시간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으로 돌아와 1900년에 할리 스트리트에 개원한 George Northcroft(1869~1943)은 치과교정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 모임을 만들었고 영국치과교정의사회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Story

1. William Addis(1734~1808)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모체는 영국인 William Addis(1734~1808)가 제작하였다. 아디스는 1770년 폭동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는데, 감옥에서 이를 닦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형짚에 검뎁과 소금을 묻혀서 이닦기를 시도하였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뿔을 조각하여 칫솔 본체를 만든 후 헤드에 구멍을 뚫고 말 털을 고정하여 칫솔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그림21)²⁷⁾.



그림21 : 현대적 개념의 칫솔 발명자 William Addis

출옥한 아디스는 1780년 자신이 개발한 방식대로 칫솔을 대량으로 제조 및 판매하여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고, 사업을 큰 아들 윌리엄에 물려주어 1996년까지 가업이 유지되었다²⁸⁾. 현재는 ‘Wisdom’이라는 제품명으로 영국에서 매년 칠천 만개의 칫솔이 생산되고 있다.

2. Sir Johnn Tomes(1815~1895)

영국 치과 의사 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 건물 로비에 들어가면 초콜릿색의 청동 흉상이 방문객을 반겨주고, BDA 치과박물관 입구에는 동일한 인물의 대형 초상화가 벽에 걸려있다(그림22). 박물관 내부에도 그 사람의 일대



그림22 : 영국 치의학의 아버지 Sir John Tomes

기가 정리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주인공은 영국에서 치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Sir John Tomes이다. 그는 연구자, 발명가, 의사 및 리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19세기 치의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톰스는 1843년부터 유명한 치과의사 그룹을 대표하여 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특별한 시험을 신설하기 위하여 Royal College of Surgery에 청원을 한 결과 1860년 최초로 LDS(License in Dental Surgery) 시험이 시행되었다²⁹⁾. 또한 톰스의 노력으로 1878년에는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한 치과의사들만이 개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Dentist Act of 1878이 통과되었다. 그는 1880년 영국치과의사협회를 설립하는데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1894년에는 3년에 한 번씩 학문적 연구에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Tomes Prize를 제정하였다³⁴⁾. 첫 번째 수상자는 법랑질 세포의 돌기(Tomes' Process)를 명명한 Sir Charles S Tomes(1846~1928)이었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서양 속담처럼 Sir Jone Tomes의 아들이었다. 지금도 이러한 학술상은 John Tomes Medal로 변경되어 매년 선정되고 있다.

그는 조직학에서는 Tomes' fibril, 임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인 curved dental forceps을 디자인하였고, 저서 A System of dental surgery를 통해 치의학 학문과 치과 임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의 공은 치과의사 면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치과 개원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치과의사 직업적인 지위를 상승시켰으며, 영국에서는 미국의 G.V. Black과 동일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23 : 영국 치의학의 어머니 Lilian Lindsay

3. Lilian Lindsay(1871~1960)

영국치과의사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치의학에 관한 장서 10,000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공식 명칭은 The Robert and Lilian Lindsay Library이며 BDA 건물 1층 치과박물관 입구에 있다. 이처럼 눈부신 도서관의 발전은 여성 치과의사 Lilian Lindsay(1871~1960)의 열정 덕분이었다(그림 23). Lilian Lindsay는 1892년 런던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치과대학 입학이 불허되었던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하여 결국 1895년 Edinburgh Dental School을 졸업하여 영국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가 되었다³⁰⁾.

그녀는 치과대학 재학시절 알게 된 치과의사 Robert Lindsay와 1905년 결혼하였고 1920년까지 에딘버러에서 남편과 함께 치과를 개원하였다. 그녀의 남편 Robert Lindsay가 영국치과의사협회 최초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함께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협회 내에 영국 최초의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350여권의 도서를 처음으로 기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명예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열성적으로 도서를 수집한 결과 지금의 도서관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녀와 그녀 남편의 이름은 도서관 명칭에 남아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있다.

그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치과계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먼저 여성으로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1946년 영국치과 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31년부터는 20년 동안 BDJ 편집차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치과의사학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50여개의 원고를 저널에 게재하였으며 'A short history of dentistry(1933)'라는 도서도 출판하였다(그림24)³¹⁾. 불어 실력도 출중하여 Pierre Fauchard의 저서 'Le ChirurgienDentiste(The Dental Surgeon)'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였고 번역본을 영국치과교정의사회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수집한 치과 기구 및 재료들을 영국치과의사협회에 기증하여 치과박물관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John Tomes prize를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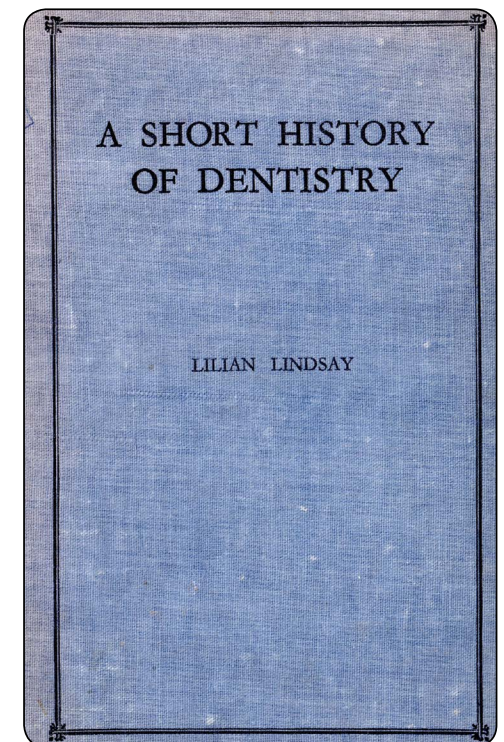


그림24 : 린제의 저서 A short history of dentistry(1933)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The Lindsay Society for the History of dentistry가 1962년 창립되어 치과의사학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Dental Historian이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있다. 그녀가 런던에서 거주했던 장소인 3 Hungerford Road London N7은 영국 유산으로 등록되어 Blue Plaque가 부착되어 있다. 그녀 역시 Sir John Tomes처럼 영국에서 치의학의 어머니로 추앙되고 있다.

The introduction of mechanics into the practice of the tooth drawer was like the discovery of the uses of fire in the history of mankind. - Lilian Lindsay -

맺음말

영국은 무려 2760개의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박물관의 천국이다. 그중에서 치과와 관련된 박물관을 방문하였고 치과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의 삶 이야기를 알게 되어 마치 방송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시청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행을 마친 후 학회지 원고를 정리하면서 치과 의사학에 대한 호기심이 치의학 역사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메워주고 있다. 치과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관광 명소와 인물은 치의학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혀준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 ‘헨리 4세’의 2부 3막 1장에 대략 이런 내용의 대사가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연대기(年代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과거의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사람의 연대기를 연구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씨앗은 과거의 어딘가에 심어져 있다. 씨앗은 점점 자라게 되고 뿌리를 내릴 토양을 만난다면 싹을 틔울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난 간 과거에서는 씨앗을, 앞으로 미래에서는 토양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미션은 좋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지금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치의학 역사 여행을 떠나기 전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볼 것 인지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여행처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경험은 어떠한 물건보다도 소중하고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다. 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을 정리하고 글을 써서 다른 사람과 일부분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보람은 덤이라 생각한다. 본 원고가 누군가의 영국 여행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여행은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치과의사학에 대한 호기심의 방이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1. John Woodforde : The history of vanity, Alan Sutton, 1992
2. Philias Roy Garant : The long climb from barber-surgeon to doctors of dental surgery, Quintessence publishing co., 2013
3. McAULEY JE, The Homes of the British Dental Association, Br Dent J 1967;122:242-6
4. Rachel Bairsto : The British Dentist, Shire Publications Ltd, 2015
5. The advance of the dental profession : A centenary history 1880-1980, BDA, 1979

6.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2
7. Donaldson JA, The Historical Collections, Br Dent J 1967;122:254-7
8. Stanley Gelbier, The Historical Museum of the British Dental Association,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3;41:85-8
9. Julia Marsh, Documentation at the British Dental Association Museum,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3;41:15-7
10. Stanley Gelbier, The BDA Museum: Looking to the Future, Br Dent J 1990;169:303
11. 손우성 : 서양 근대 치과교정학의 발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2
12. Basavaraj Subhashchandra Phulari, History of orthodontics, JAYPEE, 2013
13. Don Dible : The dental patient's little book of history, humor, and trivia, DMD house, 2006
14. Hunterian Museum at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Guidebook), 2016
15. Barry K.B, Berkovitz : Nothing but the tooth: A dental odyssey, Elsevier, 2013
16.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미국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3
17. 권 훈 : 월요시론, 대통령과 치과치료, 2167호, 2013
18. 이지희 : 값비싼 잡동사니는 어떻게 박물관이 됐을까?, 예경, 2014
19. <http://www.johnlennontooth.com>
20. John Cooper, The Weaver Reading Room and Dental Museum, University of Liverpool, Br Dent J 1988;165:193
21. A Short History & Guide to Surgeons' Hall Museums,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dinburgh, 2015
22. J. Menzies Campbell : Dentistry then and now, Pickering and Inglis, 1963
23. J. Menzies Campbell : Catalogue of the Menzies Campbell Collection of dental instruments, pictures, appliances, ornament, etc., Royal college of surgeon of Edinburgh, 1966
24. 권 훈 : 월요시론, 제인 오스틴과 치과의사의 만남, 치의신보, 2342호, 2015
25. Deirdre Le Faye : Jane Austen's letters, four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6. <http://www.harleystreetguide.co.uk/about/history>
27. 권 훈 : 이름과 제품속에 숨은 치의학 역사이야기, GC CIRCLE, VOL. 31, 2017
28. [https://en.wikipedia.org/wiki/William_Addis_\(entrepreneur\)](https://en.wikipedia.org/wiki/William_Addis_(entrepreneur))
29. BDA MUSEUM, 'Father of BDA TURNS 200, Br Dent J 2015;218:270-1
30. 권 훈 : 논단, 치과계를 빛낸 여성들, 치과신문, 708호, 2016
31. Lilian Lindsay : A short history of dentistry, John bale, Sons and Danielsson, 1933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50-2 미래아동치과
- Tel. 062-672-2543, Email: 2540go@naver.com

대한치과의사학회 활동내역

1. 2016-08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오후 7시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신사옥(강강술래 서초점 건물)
참 석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박정철, 이동운 , 강경리
안 건 : 1. 2015년 종합학술대회 종합평가 및 Checklist 수정

2. 학술집담회 준비
3.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수정
4. 의료관리학회(회장: 조영식) 등 소 학회 공동학술대회 dusrn
5. 치의학회 분과학회 협의회 청취
2. 2016-09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박정철
안 건 : 1. 2016년 종합학술대회 준비- 부분별 준비

2. 한국치과의학 교육발달사 기술 건 (대학에 자료요청)
3. 남기고 싶은 나의 가족사 (3세대 혹은 한가족 4인 이상 치과의사)
4. 의료인이 알아야 할 최근세사
3. 2016-10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오후 7시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창동욱, 이동운, 박정철
안 건 : 1. 2016년 종합학술대회 준비
4. 2016-11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7시
장 소 : 리산 삼성타운점 서초대로 74길(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빌딩 지하1층)
참 석 : 신재의, 변영남, 김종열, 차혜영, 홍예표,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이동운, 강경리, 창동욱
안 건 : 1. 의전에 관한 안건 : 영결식 주도(학회 예우차원) 내규에 넣어서 명문화

후생이사 : 경력과 사진을 매년 version up

2. 공지사항: 7월 9일 이병태 명예회장 별세 서울대병원 7월 12일 발인

5. 2016년도 치과의사학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 9차 워크샵

일 시 : 2016년 7월 23일 14시 ~ 16시 30분
장 소 : 대전역 회의실(해화실)
참 석 : 박준봉, 이해준,박호원, 손우성, 강신익, 조영수, 최홍란, 유미현, 강명신, 이주연, 권 훈, 김준혁
대주제 : 치과의사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21세기 치의학의 길을 묻는다 2. 책 번역에 관한 논의

6. 2016-12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후 7시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박정철
안 건 : 1. 의전에 관한 안건 : 영결식 주도(학회 예우차원) 내규에 넣어서 명문화
총무간사 : 경력과 사진을 매년 version up
2. 이창규 원장(고 이병태 명예회장 차남) : 50만원 학회 기증
3. 학회 명칭: 대한 악안면 역사문화 학회
(The Korean Academy of Maxillofacial History & Culture)는 어떨는지?

7.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번개모임

일 시 : 2016년 8월 31 일(수) 오후 7시 30분
장 소 : 똑심한우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내 용 : 추계학술대회 준비

8.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번개모임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창동욱
안 건 : 추계학술대회 준비

9. 2016년 대한치과의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11월 6일 (일) 09:00 ~ 18:00
장 소 : 경희대학교(회기동) 청운관 B1 박종기대사홀

주 제 : ‘What is Dentistry?’ (치의학이란 무엇인가?)

09:10 ~ 10:10	치의학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이주연 원장	류인철 부회장
10:10 ~ 11:10	교합기의 역사와 임상 응용	손미경 교수	
11:10 ~ 11:40	포스터 발표 및 Coffee break		
11:40 ~ 12:40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영국여행	권 훈 원장	권공록 부회장
12:40 ~ 13:10	런천-업체 강연 / 경품권 추첨 1		이해준 총무
13:10 ~ 14:10	Lunch / 포스터 심사		
14:10 ~ 15:10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미래	김종열 명예교수	
15:10 ~ 15:40	포스터 시상, Coffee Break		변영남 고문
15:40 ~ 16:40	우리가 악안면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이부규 교수	백대일 교수
16:40 ~ 18:00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는?	김희진 교수	

10. 2016-14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7시
장 소 : 선능역 동보성
참 석 : 김종열, 변영남, 신재의,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권 훈,
안 건 : 1. 면허번호 2만번대의 무소속(개원의나 공직이 아님)이 월등히 많이 참석. 보수교육 점수를 얻기위해 등록한 것 같다.
2. 치과의사학 교수가 연자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3.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의 역사도 기록하자.
4. 경품은 점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5. 협회 학술대회에 치과의사학과 윤리학 관련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6. 3월 정기총회장소: 서울대 치과병원

11. 2016-15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7년 2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이동운, 창동욱
안 건 : 1. 3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제 1강의실(120명)
연자와 연제 2월 20일까지 준비바람.
뒤풀이 장소: 대학식당이나 효제 추어탕집:
임원 개선
신임회장 인터뷰
2. 3월 중순 경 감사
3. 현 집행부는 대한치주과학회 출신이 많아서 차기 집행부는 치과의사학을 전공한 이사가 필요하다. 현재와 접목된 치과의사학이 필요하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1960. 10. 7 창립)

1984. 6.30 제정
1986.10.14 인준
1987. 3.11 개정, 1990. 5.28, 개정, 1995. 5.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13, 개정, 2016. 6.21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 2 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 제 4 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 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 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 6 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 1 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 2 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 7 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제 1 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 2 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선거

- 제 9 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고 문 약간명
 - 2. 명예회장
 - 3. 회 장 1 명
 - 4. 부 회 장 3 명
 - 5. 총 무 1 명
 - 6. 이 사 약간 명
 - 7. 감 사 2 명
-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회칙에 관한 사항

제 2 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 3 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 4 항 사업에 관한 사항

제 5 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제 6 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 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입회비: 5만원

2.연회비: 3만원

3.평생회비: 10년간의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 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 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 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 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 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 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 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

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중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라고 주장했다. 3, 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2는, 김 등2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X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사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 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 째 주 및 6월 첫 째 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
 T e l : 02-440-7515, Fax : 02-440-7549, email : periokkl@khu.ac.kr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	문	김 정 균	교재위원장	김 병 옥	이	사	조 영 식
고	문	박 승 오	총 무 이 사	이 해 준	이	사	박 영 준
고	문	신 재 의	재 무 이 사	김 진 철	이	사	박 덕 영
고	문	변 영 남	대 외 이 사	김 남 운	이	사	이 주 연
고	문	김 평 일	교 육 이 사	강 명 신	대 학 이 사		강 신 익
			학 술 이 사	이 우 철	대 학 이 사		박 호 원
자 문 위 원		김 종 열	편 집 이 사	강 경 리	대 학 이 사		이 재 목
자 문 위 원		차 해 영	섭 외 1 이 사	창 동 옥	대 학 이 사		박 찬 진
자 문 위 원		허 정 규	정 통 이 사	이 동 운	대 학 이 사		김 성 태
자 문 위 원		홍 예 표	정 책 이 사	권 훈	대 학 이 사		김 지 환
자 문 위 원		백 대 일	기 획 이 사	유 동 기	대 학 이 사		이 흥 수
			연 구 이 사	박 영 범	대 학 이 사		최 홍 란
명 예 회 장		이 병 태	국 제 이 사	백 장 현	대 학 이 사		박 용 덕
회 장		박 준 봉	법 제 이 사	박 정 철	대 학 이 사		박 병 건
부 회 장		류 인 철	총 무 간 사	임 해 수	대 학 이 사		유 승 훈
부 회 장		김 희 진	이 사	임 용 준	대 학 이 사		조 영 수
부 회 장		권 공 록	이 사	이 준 규	감 사		배 광 식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 35권 제1호 통권 37호 2016

Vol 35, No 1, 2016

발 행 인 : 박준봉	Publisher : Joon Bong Park
편집이사 : 강경리	Editor-in-Chief : Kyung Lhi Kang
인 쇄 일 : 2016년 6월 24일	Printig date : June 24, 2016
발 행 일 : 2016년 6월 30일	Publication date : June 31, 2016
발 행 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Published by :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06154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 207호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이해준 치과의원 전화) 02-558-2440, 팩스) 02-558-2443 http://cafe.daum.net/denhistory	Bongeunsa-ro 474, Suite 207, Gangnam-gu, Seoul, 06154 Lee Hae Jun Dental Clinic Tel : +82-2-558-2440, Fax : +82-2-558-2443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세계	Edition&printing : Publishing World

